

# 七尾仏壇

## 歴史

応永16年(1409年)能登の守護職として入国した畠山氏は、京都文化を積極的に取り入れ、指物、彫刻、蒔絵、製箔などの工芸の振興を図った。その後、前田利家の七尾入城と共に多数の職人が移り住み、仏壇の製作のみならず神社・仏閣の再興に活躍したと言われている。元和2年(1616年)の七尾の地図には、塗師[ぬし]町、木町、大工町等の名が見られる。七尾で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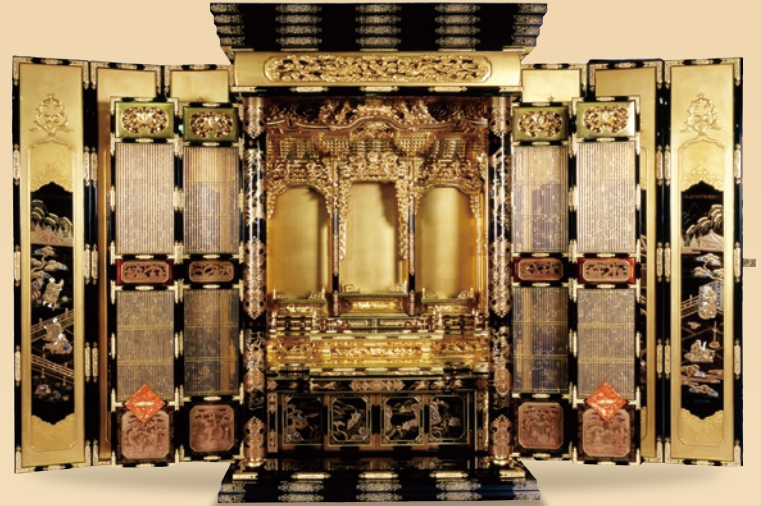
仏壇店のことを「ぬしや」と呼ぶことから、このころから仏壇製造業者が定着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 特色

七尾仏壇は、長い歴史をもつ七尾の文化を表している芸術品です。現代では数少ない完全な職人による温かみのある手作り仏壇で、堅牢で荘厳華麗な作りです。

材料には、狂いが少なく長持ちする能登アテ、能登ヒバの木が使われます。製品は状態の悪い道での運搬に耐えられるように、堅牢に仕上げられています。本体はすべてほぞ組で、塗り加工は「錆(さび)仕立」で上質な漆を使用し、金具はすべて手打ちで仕上げられています。

多くの工程が手作りの仏壇でほぞ組、堅地塗りなので、数回の分解修理に耐えることができます。



# 나나오불단

## 역사와 특색

15세기, 노토지역을 총괄하는 하타케야마 씨는 적극적으로 교토문화를 도입해 못을 쓰지 않는 전통공예품, 조각, 마키에, 금박제조 등 공예진흥을 도모했다. 그후, 가가번주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16세기에 나나오성에 입성하면서 다수의 장인들이 나나오에 살며, 불단제작뿐만 아니라, 신사와 사찰제후에 공헌했다.

불단제작에는 나무결이 매우 고우며 내구성이 높은 노토노송나무(나한백, 아스나로의 총칭)가 사용됐다. 나나오불단은 못을 사용하지 않는 '호조구미' 기법으로 제작하며,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칠가공이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장인들이 만드는 나나오불단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나오의 문화를 나타내는 예술품이다.

##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七尾市(나나오시)・中能登町(나카노토마치)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仏壇, 神輿(불단, 미코시 가마)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七尾仏壇協同組合(나나오불단 협동조합) 〒926-0802 七尾市三島町70-1(나나오시 미시마초 70-1) TEL (0767) 54-8888 FAX (0767) 54-8811